롤모델링

몸단속

교육적 입장에서 부모나 스승이 자녀나 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부모나 스승의 행동과 모습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녀가 태어나 최초의 배움터가 가정이어서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선생도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성학집요』에서 통치자는 요순堯舜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실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자식을 낳으면 여러 고모·이모 가운데에서나 또는 할 만한 사람을 고르되, 반드시 너그럽고 인자하며, 사랑스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공손하며, 삼가 예의를 지키고 말을 적게 하는 이를 골라서 그를 자식의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특히 군주의 자녀 교육에서 "군주가 스스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없이 위에서 방탕하고 방자하면, 세자가 본받을 모범을 취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고 경고

하고 있어, 스승 된 자는 물론이요, 부모의 모범적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였다.

이렇게 교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게 행동하는 일을 롤모델링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피교육자 측면에서 롤모델이라고 부른다. 이 롤모델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정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는 몸단속, 말조심, 마음 단속 등이 있다.

먼저 몸단속을 살펴보자. 사람이 자기 몸을 반듯하게 유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교육이다. 『소학』에도 등장하고, 선생의 『격몽요결』이나 『소아수지』 등에도 다루고, 오늘날 유치원이나 저학년의 교과에서 기본생활의 습관 형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몸단속의 역사는 깊다. 『예기』에도 등장하지만 조선 시대 많이 읽은 『소학』에도 소개한다. 거기에는 「경신敬身」이라는 편을 따로 둘 정도로 강조한다. 그 하위 영역에 '심술心術'이 있는데, 요즘에 쓰이는 용례인 '고약하면서도 좋지 못한 마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마음의 기술', 달리 말하면 '마음 씀씀이'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경신」 편에 '심술'이 들어 있는 까닭도 알아두면 좋다.

경신의 뜻은 '몸을 공경한다'라는 의미이다. 앞서 소개한 공경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공경과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의아하게 여길 듯하다. 몸을 공경하라는 말은 몸을 사려 자기만 편안하게 지낸다는 말이 아니다. 몸

을 조심하여 잘못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곧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위험한 일 하지 않고,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으로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려면 자연히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어서, 몸을 공경하면 자연히 마음을 잡도리하게 된다. 아마도 유학자들은 그런 배경에서 공경의 두 번째 의미인 '마음의 잡도리'를 연역해 내었을 것이다. 바로 몸과 마음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신」 편에 '심술'을 두었고, 몸단속으로 마음 단속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몸을 단속하는 일차적 목적은 예의나 예법에 맞게 사회생활을 잘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마음 단속을 위한 수양의 방편이나 도구로 삼는 데 있다. 눈에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수양할지 어려운 일이므로, 이렇게 몸을 단속해서 하고자 하였다.

선생은 몸단속을 위해 『격몽요결』에서 구용九容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발걸음은 진중하게(어른 앞에서는 예외)
손 모양은 공손하게(부지런히 움직이되 일이 없을 때는 단정히 손을 모음)
눈의 시선은 단정하게(흘겨보거나 훔쳐보지 않음)
입은 다물기(말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목소리는 조용하게(구역질, 트림이나 잡소리를 내지 않음)

머리는 곧바로 세우기(돌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호흡은 엄숙하게(소리가 나지 않게 고르게)
선 자세는 덕이 있게(가운데 서고 기대지 않음)
얼굴빛은 장엄하게(단정하고 게으르지 않게)

괄호 속의 내용은 선생이 더 첨가한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우리가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는 어렵다. 현대의 가치와 문명이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면, 과거의 그것을 고수한다는 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선생의 보충 설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무튼 이 내용은 오늘날 부모나 리더가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하다. 특히 요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하는 때에 발걸음과 손 모양과 목소리 그리고 눈의 시선 등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와 그에 따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것들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리더로서 강의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송 등을 통해 대중 앞에 나설 때 더욱 그러하다. 요즘 정치인 가운데는 방송 중에 머리를 자꾸 돌려서 조롱을 당하는 분도 있지 않은가?

현대의 부모로서 몸단속의 내용에는 바른 자세, 과음하지 않기, 흡연 안 하기, 완력으로 남과 다투지 않기, 지나치게 몸을 혹사하지 않기, 비상식적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기, 먹는 일에 집착하지 않기, 부부 이외의 남녀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 유지하기, 단정한 옷차림, 공

손하고 예절 바른 행동, 위험한 행동 안 하기, 안전 운전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따라서 부모로서 또는 조직의 리더로서 몸을 반듯하게 하는 일은 구성원들과 자녀에게 믿음직한 신뢰를 주고, 진정성을 보임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모나 리더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 가정과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특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수양할 때, 몸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몸단속이다. 다만 그 방법이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

아무튼 부모가 자녀가 보는 데서 몸단속을 잘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롤모델이 된다. 자녀가 어리다면 그것을 따라 하면서 스스로 반듯하게 자랄 것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마음도 따라서 바르게 된다.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 되는 일도 여기서도 증명된다.

말조심

몸단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말조심이다. 사실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도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온갖 비난과 조롱도 말조심과 관계가 있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어 지옥과 천국을 넘나

든다.

이 말조심에 대해 선생은 『시경』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너의 말을 삼가고 너의 몸가짐에 주의하여 안정되고 선하게 하라. 흰 옥의 티끌은 갈아서라도 없앨 수 있지만, 말의 실수는 그럴 수 없다. 경솔하게 말하지 않아 구차함이 없게 하라. 내 혀를 잡아 줄 이가 없으니,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

한 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 없고, 누가 내 입을 막거나 혀를 잡아주지도 않아서 누구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지만, 자칫 실수했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진리이다.

이렇듯 부모로서 말조심은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아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좀 자라면 아이 앞에서 아이의 친구나 그가 좋아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를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이다. 또 스승을 비난하면 그에게 스승이 없게 된다. 순자荀子의 말이다.

또 선생은 스스로 경계하는 글인 「자경문自警文」을 지어 말하기를,

>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이 적으니,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말을 적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라고 하여,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들뜨고,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아는 밑천이 다 드러나지 않았는지 찜찜하고, 자신의 내면을 죄다 까발린 것 같아 불안할 때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선생의 이 견해도 말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간파한 말이다.

사실 유학자들의 말조심은 군자가 마음공부로서 덕을 쌓는 일에 관계되지만, 때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말실수로 자칫 옥사獄事에 연루되면 생명을 보전하기 어렵다. 상대 세력으로부터 모함은 물론이고, 오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이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 될 수 있다.

말조심을 덕과 관련시키는 까닭은 말은 마음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선생은 남송의 유학자 채연蔡淵(1156~1236)의

> "말이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이란 마음의 자취이니, 말과 행동은 바로 마음과 감응하는 중심축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앞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이는 말과 마음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마음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말이다. 이는 현대 언어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으로서 언어가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사고할 수 없다고 한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사고는 언어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 보이고, 아는 게 적으면 밑천도

바닥난다. 이 경우도 침묵은 금이다.

오늘날 용감한 신인 정치가들이 남의 조롱을 당하는 까닭도 말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역량이 부족한 리더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부모도 아이가 장성하면 이런 국면에 접어든다. 부모의 속마음이 자식에게 간파당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면 자식은 부모를 무시한다. 못난 자식 놈은 대 놓고 부모를 무시하기 일쑤다. 이럴 때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자녀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었다면, 부모를 어려워하거나 존경할 것이다.

부모가 말을 조심해야 할 영역은 무척 많다.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면 부부 사이의 단점, 자녀의 단점을 크게 꾸짖는 일, 아이의 친구나 스승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정치나 종교적 관점, 남을 험담하는 일, SNS에 비상식적 욕설이나 허위 정보를 올리는 일,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아이 앞에서 대 놓고 험담하는 일, 부모의 친척이나 이웃을 비난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 같다. 모두 아이 앞에서 조심해야 할 말이다.

사실 부모와 장성한 자녀의 관계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정情으로만 유지할 수 없는 게 오늘날 문화이다. 양쪽 사이에도 나름의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직장의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그러하듯 한쪽에 먹히게 되어 있다. 자식은 부모에게 탁월한 역량이 있어야 그를 본받으려 하고, 또 자식도 뚜렷한 주견과 가치관이 있어야 부모가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

여기서 부모 된 사람은 끊임없는 자기 학습과 성찰을 통해 변화하는 가치와 문화를 알아 자식과의 세대 차를 극복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진정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반조직의 리더처럼 부모의 리더십도 발휘된다. 과거의 관습을 따른 부모의 역할에만 안주하면, 젊은 세대로부터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 훗날 천대받는 노인이 되는 일은 어느 부모든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마음 단속

마음 단속은 웬만한 고수가 아니면 어려우므로 쉽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몸단속임을 앞에서 알아보았다. 그 근거를 선생은 『성학집요』에서 소개한다. 곧

"군자가 중후重厚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고, 배워도 견고하지 않다."

라는 『논어』 속의 말을 주석한 주희朱熹의 말에 보인다.

"외면이 가벼우면 반드시 내면이 견고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도 없고, 배우는 것도 견고하지 못하다."

바로 여기서 '외면의 행동이 가벼우면 반드시 내면의 마음이 견고

하지 못하다.'라는 주희의 해석에서 몸과 마음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선생이 소개한 의도도 바로 거기에 있다. 내면을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면, 먼저 몸을 단속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이 부분은 스님들이 마음공부의 과정으로서 그토록 많이 수행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몸을 통해 마음을 단속하고자 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대로 선생도 말을 자제하여 안정시키고자 하였으며, 또 「자경문」에서

"일에 집중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안 돌아가거나 부부 싸움을 했거나 슬픈 일이 있어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할 때, 쇼핑이나 집안일, 운동, 취미 활동 등에 집중하는 일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다. 훌륭한 마음 단속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은 직접 통제하기 어려워서 간접적으로 몸을 통해서 하고자 한 일이 일종의 해법이자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의 무엇, 달리 말하면 어떤 마음을 단속하고자 했을까? 유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음이 사사로운 욕망에 이끌리는 일을 단속한다. 달리 말하는 그런 욕망을 이기는 일이다. 이는 선생이 『성학집요』에서 『논어』에 나오는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인용할 때 등장하는데, 자기를 이긴다는 극기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는

것으로 풀이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는 제자 안회顔回의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변 속에 들어 있다.

그 요지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모두 규범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며 그것이 극기의 조목이다. 예는 당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자가 따르는 규범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는 욕망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욕망의 추구에 있어서 사회의 규범에 맞아 정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사람들이 유학을 오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유학이 금욕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공자의 이 풀이를 보면 규범에 벗어나지 않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정당하고, 사욕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유학자들이 말하는 사욕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에는 약간의 간격이 있다. 전자는 주로 통치자의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사욕은 부덕이다. 그에게 필요한 기본적 욕구의 대상은 미리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보통 사람의 사욕은 규범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정당하다. 아니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유능한 일로 통한다. 다만 그런 경쟁 과정에서 파생된 남과의 분쟁이나 불화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정의 리더로서 부모는 자기 마음의 무엇을 단속해야 할지 선생의 설명에서 볼 때 분명하다. 규범을 넘어서는 사적인 욕망을 이겨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규범을 넘어서는 사적인

욕망에는 무엇이 있을까? 위법 사항은 물론이요, 도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일도 여기에 해당한다. 도덕의 영역만 보면 가령 아이가 듣는 데서 남을 험담하거나, 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과 새치기나 욕설을 하거나, 음주로 집안을 시끄럽게 하거나, 부부 싸움이 잦거나 하는 일 따위는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

해서 훗날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서 부모를 평가할 때 '이건 아니다'라는 말이 자녀의 생각에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자녀가 제대로 자라 성인이 되면 자기의 부모를 평가할 수 있다. 부정적인 면은 차마 남에게는 못하더라도 혼자서는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할 수도 있다. 국가나 사회에서 역사를 두려워하듯이 부모는 자녀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앞서 마음을 단속하는 요령은 공경과 성실을 다루는 곳에서 이미 말하였다. 마음을 단속하는 일이 미숙하다면 몸을 먼저 단속하는 일이 유용하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불필요한 욕망의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붙잡아 와 마음이 진실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다.

혹자는 말하겠다. 이렇게 매사에 몸과 마음을 단속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건 질문자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 평소 반듯하게 살아온 분이라면 힘들기는커녕, 그렇게 하는 것이 되레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달리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이 몸에 배지 않은 젊은 부모라면, 인생의 공부라고

생각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훌륭한 부모가 될 것이다.

닮고 싶은 사람

요즘은 옛날처럼 부모의 명을 자녀가 순순히 순종하는 일이 드물다. 겨우 말을 하는 어린아이조차도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사실 그런 일은 칭찬해야 할 만한 일이다. 인간은 질문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식이 좀 자라 사춘기에 돌입하면 순순히 따르기보다 저항하거나 반항하기 일쑤다. 그 또한 정신적으로 그들이 독립하는 과정이다. 불순종이라고 야단치거나 혼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이 경우 부모는 그들을 설득하든지 때로는 협상하든지 더 나아가 자녀가 스스로 따르는 롤모델이 되면 좋다. 조직의 리더가 지시를 내릴 때도 그렇다. 명령이나 지시로만 강요한다면 '꼰대'라는 말과 '조폭의 두목'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반면에 여러 영향력을 발휘하여 리더는 구성원들이 본받고 따르고 싶은 대상이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부모나 리더에게는 다양한 리더십의 역량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녀가 진심으로 닮고 싶은 대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유학에서 말하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논리에서 보면 그 점을 전제하고 있다. 자기 몸을 닦아 성인군자가

되면 자연히 가족 구성원들이 감화되어 따른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가 통하지 않으면 유학은 하나의 이상론이자 이념일 뿐이다. 선생이 『성학집요』를 지어 선조에게 올린 의도도 거기에 있었는데,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선조 자신의 의지가 없었든지 아니면 선생의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었든지, 그것도 아니면 양자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이란 우리 전근대 사회 통치자의 이상적 모델이다. 불교의 석가나 기독교의 예수와는 다르다. 리더로서 이치에 어긋나지 않게 제반 제도를 완비하고,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교화하여, 이 땅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자가 성인이다. 곧 행위와 가치의 표준이 성인이다. 이런 이상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민주주의도 못 따라온다. 선생은 그 같은 성인은 배워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굳이 성인은 못되어도 현인賢人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필자는 이러한 유교적 성인이 현대에 등장해도 통할지 의문이다. 전근대 사회와 달리 현실은 민권이 보장된 각자 욕망의 각축장이어서, 리더의 역할은 사회적 자산을 그 욕망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때로는 지나친 그것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모두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리더가 아무리 도덕적 모범으로 완벽해도, 그것만으로는 이러한 욕망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교적 가치에 모두가 감화되거나 그것을 수긍하여 따르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인의 사적인 욕망 앞에서는 무력하다.

다만 가정교육에 있어서 옛 선비들이 따르고자 했고 이상적으로 여겼던 성인 또는 현인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자녀가 어릴 때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롤모델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자녀가 어려서나 장성하여 닮고 싶은 부모, 따르고 싶은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성공한 셈이 아닌가?

대개 어릴 때 유아의 존경 대상은 부모이다. 또래 아이들과 놀다가 "우리 아빠가 제일 힘이 세."라고 하거나 텔레비전 광고처럼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등 부모가 일차적 대상이다. 좀 자라면 과학자나 운동선수, 연예인 등으로 옮겨 가다가 청년이 되면 성공한 기업가, 예술가, 사회 운동가, 학자 등으로 옮겨 갔다가, 나이가 더 들면 종교인이나 주변의 실천적 사상가 드물게는 자신의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 된다.

아이의 발달 과정상 행동과 판단의 모델로서 부모가 점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화의 상대자로서 고민과 문제해결을 위해 부모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면서 점차 닮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는 본서의 뒤에서 다룰 주제이다. 해서 앞서 말한 부모의 학습이 진척되어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생각과 판단이 올바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는 자연히 부모를 닮지 않겠는가?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은 아니어도, 적어도 인격만은 밤이슬에 옷이 젖듯이 알게 모르게 닮아 갈 것이다. 자녀가 닮고 싶다고 의식하지 않아도.

이는 부모의 역할을 하기에 앞서 부모 자신이 훌륭한 인격과 동시

에 리더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전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교양인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전근대 사회에서는 군자君子라 불렀다. 부모가 되기 이전에 군자여야 한다는 말이다.